[보도자료]

대국민 독서지원 프로젝트, 이번이 마지막 기회!

- 책값 전부를 되돌려받는 대국민 독서지원 1, 2, 3차 이벤트, 뜨거운 요청에 앵콜 돌입!

- 4차도 28일 시작, 참여하면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

1등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독서지원 프로젝트의 ‘앵콜 판매’를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기간 제한을 두고 진행된 대국민 독서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독자들의 재개 요청이 빗발쳐 다음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한 것이다. 다만 값은 기존 행사 기간보다 다소 인상됐다.

이와 함께 리디북스는 28일 오후 6시부터 명작 고전 도서 약 500권을 16만9000원에 50년 동안 장기대여하는 제4차 대국민 독서지원 프로젝트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4차 이벤트 참가자 모두에게는 올해 가장 인기있었던 전자책 단말기인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정가 8만9000원)가 선물로 제공된다. 특히 이달 31일까지 구매하면 2만 원 할인된 14만9000원으로 해당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8일 판매를 시작하는 4차 이벤트의 대상인 명작 고전 도서는 ‘Y의 비극’, ‘황금벌레’,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등 고전 추리소설 시리즈부터 ‘마의 산’, ‘폭풍의 언덕’, ‘삼국사기’, ‘아큐정전’ 등 고전을 총망라한 베스트 컬렉션 모음이다. 문예 세계문학선, 범우문고, 동서문화사 월드북, 동서 미스터리 북스 등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스테디셀러 세트 총 486권으로 구성됐다.

이달 중순 책을 사랑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리디북스의 대국민 독서지원 프로젝트는 소설(114권)/역사(90권)/고전(197권)으로 나뉘어진 세트 도서를 각각 5만 원에 50년 간 장기대여하는 이벤트였다. 특히 한 번 결제하면 결제금액 모두를 리디북스에서 책을 사는데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받는 이벤트여서 사실상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다만 각 차수 별로 3, 4일씩 제한된 기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출장 등 급한 용무로 이벤트를 놓친 고객들의 아쉬움이 컸다. “잠깐 일 때문에 집중하는 사이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앵콜 이벤트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jun\*\*\*\*), “1차를 못 구한 게 한이 될 것 같습니다.”(hea\*\*\*\*), “1차 이벤트 끝나고 30분후에 알아서 너무 아쉬워요… 앵콜이벤트 한번만 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kir\*\*\*\*) 이같은 의견들이 리디북스 공식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 전자책 커뮤니티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각 이벤트가 종료될 때마다 수백 건 씩 접수됐다.

이에 리디북스는 25일 오후 6시부터 1, 2, 3차 장기대여 도서 전체를 다시 판매하는 앵콜 행사를 시작했다. 판매 기간은 25일 오후 6시부터 2016년 1월6일까지다. 1, 2, 3차를 한 눈에 살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이지만 가격은 본 판매 때보다 각각 5000원 인상된 세트별 5만5000원에 판매된다. 물론 기존 이벤트와 동일하게 책 값을 100%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포인트백 이벤트는 이어지게 된다. 5만5000원 장기대여 세트 3종류를 모두 구입하면 16만5000원을 포인트로 되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리디북스 측은 시대가 흘러도 가치가 변치않는 좋은 책들을 현대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담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독서지원 프로젝트처럼 독자들이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전자책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